

01 교회소식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발간과 성령 충만했던 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상식 소식.

02 생명의 말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2)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를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신약시대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본다.

03 기획특집

참된 신뢰와 사랑을 이루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선하신 뜻을 깨우치며 사랑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과 참된 신뢰로 하나 될 수 있다.

04 간증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오미경 집사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올렉 지아첸코' 목사의 부활절 공연 및 방문 소감.

만민뉴스

제834호 2018년 4월 1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요셉의 신앙 여정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발간



아동주일학교의 초등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참된 신앙의 롤 모델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오는 4월 17일, 초등학생을 위한 이재록 목사의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일곱 번째 책자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이 발간된다. 이 아동교재는 17세 때 타국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국의 총리가 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기까지의 애굽 총리 요셉의 신앙 여정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담아냈다.

총 16과로 구성된 이 교재는 각 과에 공부할 핵심 내용에 앞서 흥미와 교훈을 주는 예화와 동화 삽화로 시작하며,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 코너로 마무리 된다.

아울러 이스라엘 조상 야곱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요셉, 애굽 총리 요셉의 가계도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동 경로 등 다양한 학습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역사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험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던 요셉, 최고의 리더십으로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형통했던 요셉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어린이들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늘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심어질 것이다.

아동교재는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 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섭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외에도 <키즈 바이블 스터디>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대장』 등 총 18권이 있다.

응답과 축복이 가득했던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시상식

지난 4월 8일(주일) 오후 8시 30분, 본당에서는 준비찬양을 시작으로 GCN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상식이 있었다. 기도회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지난 2월 26일부터 42일간 '2018년 7가지 기도제목'이라는 주제로 매일 밤 9시부터 성령충만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만민기도원에서는 40일 이상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201명을 추첨하여 선물을 증정하였고, 추첨 사이사이에는 예능위원회 소속 팀들이 은혜로운 공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대상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추첨한 박미숙 집사(2대대 15교구, 사진)에게 돌아갔으며, 끝으로 산상기도 중인 이 목사가 전화 연결을 통해 축복기도를 해 주었다.

한편 만민기도원에서는 매년 전, 후반기 특별 다니엘

철야 외에도 매일 밤 21일 단위로 주제를 정해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개최하여 GCN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합심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 치료나 문제 해결을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평일에는 기도원 오전 예배와 오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저희가 믿음으로 ...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
(히브리서 11:33~38)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2)

과 사랑으로 채워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하는데, 곧 하나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요일 1:7),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약 2:22).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일에 연연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이 땅에 잠시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한다 해도 이후에 주어질 하늘의 영광은 그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이지요. 또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자신도 주님을 위해 가까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

1)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길을 걸었던 주님의 제자들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서, 헤롯 왕 때에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위협과 옥에 갇히는 시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때가 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지요.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타 죽지 않았고, 이후 밧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박해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역경(고후 11:23~27) 속에서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군중 앞에서 옷이 벗긴 채 매를 맞은 뒤 깊은 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고(행 16:22~25), 어떤 때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그가 죽을 줄 안 사람들에 의해 성 밖에 내다 버려진 적도 있었지요(행 14:19).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로 8:35~37).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주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큰 악을 행했던 자신을 만나 주시고 사도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어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3) 원형 경기장에서 극심한 박해를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

주후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방화했다는 소문이 나돌자 네로는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체포되었고, 급기야 네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는 그들을 시민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했지요.

이때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이는 함께 손을 마주잡고 하늘을 우러러 힘차게 찬양하는 중에 맹수의 공격을 받아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지요.

4)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순교한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카타콤 성도들

주후 2세기에는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해져서 기독교인들의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되었고, 거리에서 폭도들에 의해 돌에 맞는 등 위험을 동반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박해가 극심했지요.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물려 순교했고,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것을 강요받았지만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아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날로 심해지고 장기화되자 성도들은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으로 피하여 언제 잡혀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위험 속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마치 죽음 속에서 산다고 할 만큼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뎠지요. 매일 기도와 찬미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먼저 간 형제들이 천국에서 누릴 즐거움을 얘기하며 소망 가운데 생활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박해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시민권이 박탈되고 교회가 불태워졌으며 많은 성직자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투옥된 지도자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도록 강요당했는데, 이에 불복할 때는 가혹한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처럼 심한 박해 속에 죽어간 순교자들에게는 대부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호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불의 응답을 끌어내린 엘리야, 자신의 민족을 살린 에스더, 죽음 앞에서도 타협지 않았던 다니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적인 담대함으로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이번 호에는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이긴 신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요한복음 6장 53~55절에 “...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요 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요 1:14). 따라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으로, 영적으로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고 선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8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침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참된 신뢰와 사랑의 비결

생명 다한 사랑을 드리기에 합당하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신뢰와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주님, 성령님과 참된 신뢰와 사랑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 살펴본다.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했다. 과연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일까?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가 혼의 작용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서 정욕을 좇아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범사에 자기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자기 유익을 좇아 생각하므로, 옳은 일을 잘못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악하다고 오해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틀린 줄을 모른 채 살아간다.

쉬운 예로,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던 상대가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잘 받아 주지 않고 표정이 좋지 않으면,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무례한 사람이네!’ 하며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상대의 상황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간사함과 변개함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너무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를 본 아내 미갈이 품위 없이 천한 행동을 했다며 업신여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다윗의 행위를 미갈은 자신의 악함과 교만함 속에서 악으로 판단한 것이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에게 안수하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사실에 분을 내며 무리에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침을 받으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 사랑과 선이 없으니 자기 의와 틀에 맞춰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등 비진리와 자기 의와 틀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 선한 것을 선하다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악을 발견하여 신속히 뽑아 버리고 범사에 영의 생각을 해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13)는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받아 선하신 뜻을 깨우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춰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끝까지 매달린다.

이처럼 겸비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즉시 응답해 주셨다. 만일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예수님께 서운함을 품을 수 있고 낙심해 응답받기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인에게에는 응답받을 믿음이 있었기에 변함없이 선한 고백으로 매달렸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아셨기에 끝까지 믿음을 내보이게 하셔서 응답받을 만한 공의 분량을 채우게 하

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할 때 쉽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변개하는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의 겸비한 고백을 끌어내신 것이다.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선과 사랑을 믿기에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 궁구하게 된다.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후, 마음의 악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만큼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칠 수 있기에 내 안에 악한 생각과 비진리가 있고, 세상 사랑함이 있으면 보혜사 성령은 역사하실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선한 마음으로 궁구하면 깊은 뜻도 깨우칠 수 있고, 그 뜻을 깨우쳐 나가는 만큼 신뢰도 점점 깊어지게 된다.

사랑이 커지는 만큼 신뢰도 커집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당시 함께하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겪은 후에는 그 사랑의 차원이 더 깊어졌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던 스승, 더구나 선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자신은 그분을 지켜드리기는커녕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는 말까지 내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도 없이 묵묵히 자신을 바라보셨고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목도한 후 베드로의 사랑은 예전과 달라

졌고, 그 사랑이 깊어진 만큼 신뢰도 전혀 달랐다.

전에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살기등등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담대히 복음을 외칠 뿐 아니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때도 그 신뢰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다. 오직 뜨거운 사랑과 굳건한 신뢰 속에 영광스러운 순교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참된 신뢰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땅에 서뿐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을 드리기에 바란다.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목자의 마음 ■ 순전 1-2
- 믿음의 분량 21-25 ■ 십계명 10
- 십자가의 도 23-24 ■ 창세기 강해 66-71
- 위로부터 난 지혜 8-9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4
- 요한계시록 강해 79-87

GCN TV설교

-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2(이수진 목사)
- 영의 세계 70 (이희선 목사)
- MIS 강의 45 (정구영 목사)
- 응답 (김수정 목사)
- 축복의 토대 5 (천우진 목사)

예능 프로그램

- 관능 2
- 배워보아요 2
- 하나님의 마음 1
- 천지창조의 섭리 3
- 기초중국어 니하오마 2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16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2



1998년 2월경, 저는 당시 아프리카에 사는 언니(오미옥 권사)를 보러 케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언니가 일하는 미용실을 나이로비만민교회 선교사님들이 자주 찾아오셨기에 '만민'의 사역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지요.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공연 동영상도 보았는데 너무나 경이로웠고, 저는 '저런 교회가 있다니! 나중에 꼭 가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10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만민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각종 예배와 다니엘절 기도회에 참석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예능위원회 단원이 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무용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도 치어리더 활동을 했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2003년부터는 당회장님의 해외 연합대성회 시 공연팀으로 동행하며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목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예능위원회 공연 안무는 물론 후배 양성에도 힘쓰게 되었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되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저를 케냐에서 한국으로, 만민의 양 떼로, 주의 일꾼으로 이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다했습니다.



2015년 6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힘쓴 결과 영

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으니 폐결핵이었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지만 저는 놀라기보



오미경 집사 (40세, 2가나안선교회)

다는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지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이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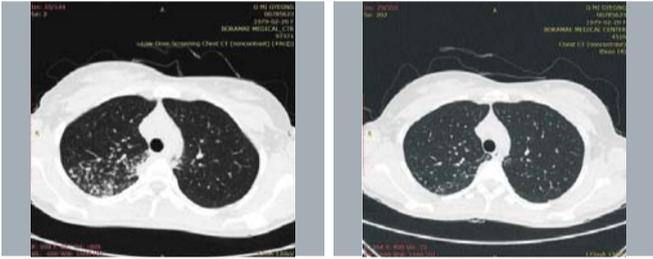
저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기록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꿈을 통해 당회장님께서 나타나 주시거나 기도해 주셔서 차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전에 회개했지만 온전히

회개되지 않은 부분까지 떠올려 주시며 통회자복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에는 안무지도자로서 더 좋은 작품을 드리고자 열심히 공부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GCN방송의 워십댄스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영혼에게 천국 소망과 당회장님의 크신 권능의 사역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폐 CT 촬영



▲ 기도받기 전: 우측 폐 상엽에 폐결핵으로 인해 폐포 파괴 및 심한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음.

▲ 기도받은 후: 폐결핵으로 인한 염증 소견이 깨끗이 사라짐.



“만민은 특별하고, 단연 최고입니다!”

올렉 지아첸코 목사 (47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새벽별교회)

러시아만민교단협의회 총회장인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님이 '만민'과 함께 사역하면서 주 안에서 변화되고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민'과 함께하기를 사모하였고, 2008년에 만민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목회자님

들,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와 감동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복한 마음으로 기대를 안고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오게 되었지요. 저는 만민중앙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충만한 열기와 영적인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당회장님과과의 만남도 무척 좋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를 살피주셨고 자상하며 겸손하셨습니다. 만민의 성도님들 또한 특별했고,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었지요.



부활절 공연 역시 매우 훌륭했습니다. 정말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연은 프로페셔널했고, 제가 본 공연 중 단연 최고였지요(오른쪽 사진).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연기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연기도 놀라웠지만 그 음악과 십자가, 못 박는 장면 등의 연출 또한 놀라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의 처절한 심정을 이렇게 섬세하게 다룬 공연은 처음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

활에서는 희열이 넘쳤지요. 저는 만민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러시아에 돌아가 널리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41)881-7000, 010-3030-7025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62)513-2455, 010-8888-072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해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22 ☎041)546-1537, 010-2672-0244
-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